

# 광주·전남 신청 접수 1329명, 몇명이나 가족 만날까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남북이 오는 8월1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해 광주·전남 실향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 22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오전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8·15 이산가족상봉행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상봉 규모 등을 논의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광주·전남 지역 상봉 신청자는 각각 533명, 796명 등 모두 1329명에 이른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과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우광호 한적 국제 남북국장, 류재필 통일부 국제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상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과 김영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등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회의 상황과 관련, "남북 양측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문제와 관련해 시기와 규모, 상봉 방법,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해 상호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봉행사 합의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북이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일회성 만남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법을 공동보도문에 담지는 못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상대측에 있는 가

##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 근본 해결책은 北 미지근

### 정부 생사확인 등 실무 착수

족·친척들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을 북측에 제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산가족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사확인부터 시작해서 정례적으로 만나고 심지어 성묘까지 가고 화상상봉을 하든지 고향방문단을 만든다는 것까지 쪽내가 (북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 번에 100명 정도씩 만나는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측 반응은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게 박 회장의 전언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법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점에 비춰 북측이 여전히 이들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측의 반응이 여전히 미지근하지만, 정부는 이미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북측과 전면적 생사확인 합의할 때를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 방문 및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할지를 묻는 수요 조사를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에 가족이 살아있는지를 알아야 대면



지난 22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봉은 물론 화상 상봉과 고향 방문, 서신교환 등의 교류가 더욱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이산가족 등록자는 총 13만 2124명이며 이 중 7만5234명이 사망했

고, 5만6890명만 생존해 있다.

생존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85.6%인 4만8703명에 이르며, 매달 수백 명의 이산가족 신청자가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숨지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연합뉴스

## "2030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현실화"

### 문대통령 귀국... 남북러 3각 경제협력 토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2박 4일간의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일 경우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진전을 보이는 단계부터 철도·전력망·가스관 연결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게 초청장을 보냈다. 여기에 아베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경우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북아 정상들 간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인 지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F조 2차전 전반전이 끝

난 뒤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며 2030년 월드컵의 남북 공동 개최 의사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인판티노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거론하며 2030년 월드컵의 남북 공동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남북 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라며 "그때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아주 많은 일을 해냈다"며 "대통령의 그 열성과 집요함,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힘을 발휘했다. 한국에 곧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해외에서 개최된 월드컵 가운데 한국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6강 진출의 기로에 놓인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러시아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예선전 관전을 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고령·직계가족 우선 3~5배수 먼저 뽑아 8월 4일 남북 최종 대상자 명단 맞바꿔

### 이산가족 상봉자 선정 어떻게

남북이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22일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상봉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한적은 곧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봉자 선정에서부터 준비작업에 통상 약 2개월이 걸려서다.

한적은 먼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선위원회 구성, 상봉 후보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연령대별 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 조정을 한다.

확정된 기준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인원의 3~5배수를 먼저 뽑는다. 이어 당사

자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 등 확인을 거쳐 상봉 후보자를 2배 수로 압축, 7월 3일까지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게 된다. 생사확인 결과를 주고받아야 같은 달 25일까지 회보서를 교환한 뒤 생존자 중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8월 4일 남북이 명단을 맞바꾼다.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하루 전날 방북 교육을 받은 뒤 그 이튿날 상봉 장소로 가게 된다.

정부는 한적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 합동 실무팀을 발족해 실무협상 등에 대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그간 한적의 국장급 또는 팀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아와 이번에도 우광호 한적 국제남북국 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1985년 남북한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했고, 15년 뒤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



로 그해 8월 첫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이후 2015년 10월 20~26일을 마지막으로 그간 이산가족 상봉은 모두 20차례

이뤄졌다. 장소는 1~3차 때만 서울과 평양 동시교환 방문 형태였고, 4~20차는 모두 금강산이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빼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